

‘폭탄’ 된 DLF...투자자들 4500억원대 손실

〈파생결합펀드〉

금감원, 오늘부터 파생금융상품 설계·판매 은행 검사 착수 금융소비자원, 수익에 눈 멀어 무분별 판매 은행장 고발도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파생결합펀드(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상품은 해당국 금리를 기준지표로 삼는데, 금리 전망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자 수천억원대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금리연계 DLF·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해외금리 하락에 눈덩이 손실=금융감독원은 앞서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과 함께 이들 상품의 구조 예시를 공개했다.

이달 7일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

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이중 손실예상액은 4558억원(5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와 영국 CMS 금리, 독일 국제 10년물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계 DLF는 장단기 금리차(스왑 레이트)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 상환되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3개월마다 두 기초 자산의 중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95%(3개월), 85%(6개월), 75%(9개월) 이상이면 연 3.5%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평가 시 두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0%를 찍으면 원금은 전액 손실(만기 쿠폰 감안 시 최종 수익률 -96.5%)된다.

만기 내에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좁혀지거나, 극단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상품 구조인 셈이다.

이들 상품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 전망이 나빠지면서 중앙기 채권 금리가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한 탓이다.

◇감독부재·도덕적 해이 ‘예고된 인재’=DLF 상품의 판매가 상당수 이뤄진 3~4월 이전부터 선진국 경제에 대한 하강 우려가 커지고 채권금리가 이미 하락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들이 상품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식이 없는 금융소비자도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류 등에 자필 서명 몇 차례만 하면 ‘옵션 매도’ 거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생결합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옵션이란 사전에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사실상 부재

한 상황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적절한 판매 권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경영진은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 중도 환매수수료를 우대했을 때 다른 고객 수익에 미치는 영향, 배임 우려 등을 내세우며 단일한 대응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10월부터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왑(CMS) 금리에 연계한 DLF를 판매해 누적 2조원 가량이 판매됐고, 현재 잔액은 3800억원에 이른다. 하나은행 PB 약 180명이 고객에게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DLS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두 은행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전남농협,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교육 실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결의

농협 상호금융이 출범 50년을 맞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상임이사 및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열었다.

상호금융은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날 교육에서는 미중 무역협상·한일 무역마찰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상호금융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오고 갔다.

참가자들은 디지털금융 대응 방안 및 추진전략을 나누고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신관리 전략 강의 ▲소비트렌드와 금융마케팅기법 강의 등에 참여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협을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실 위주의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남농협은 앞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 실익증진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 회복·증시 폭락에 “비싸도 역시 금”

광주신세계, 재테크용 문의 잇따라 내달 30일까지 상품권 증정 행사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일본과 경제 마찰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22일 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골드바 판매액은 3월 34억5000만원에서 4월 87억7300만원, 5월 171억9600만원으로 다달이 두배 가량 급증했다.

6월엔 89억1200만원, 7월엔 73억6900만원으로 최근 들어 판매액이 꺾이는 모습이지만 연초 판매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4개월여 전부터 골드바 판매에 들어간 (주)광주신세계도 매출이 들쭉날쭉하지만 ‘재테크용’ 금에 대한 문의는 잇따르고 있다.

이곳의 ‘전달 대비 골드바 매출 증감률’은 5월 -47.3%, 6월 125%, 7월 -44.4%, 8월 20%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3월 말부터 매장 1층에서 골드바 판매를 시작했다. 중량은 3.75g, 10g, 18.75g, 37.5g, 100g, 375g, 500g, 1kg 등이 있다.

이곳에서 판매된 금 제품은 대부분 1돈(3.75g)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까지 매장 1층에서 골드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행사를 벌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값 상승에 맞물려 일부에선 금 사재기 움직임도 있지만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전 중량의 골드바를 50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신세계상품권을 주고 구매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는

판촉 행사를 벌인다. 100만·300만·500만·1000만·3000만·5000만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1만·3만·5만·10만·30만·50만원 상당 상품권이 주어진다. 현금, 카드(신용·체크)로 결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5만9260원(1돈당 22만

2225원)으로 지난해 말의 4만5970원(1돈당 17만2388원)보다 28.9% 올랐다. 이날 금 1돈 시세는 28만1820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1g당 금 가격이 6만1300원(1돈당 22만9875원)으로 마감, 2014년 3월 KRX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내달 5일 퇴직연금 포럼

28일까지 참가 신청

노후보장 시스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호주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금융투자협회와 주한 호주대사관 호주투자자대표부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자산운용사·증권사·연기금·보험사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호주 재무부, IFM 인베스터스(퇴직연금 운용사), 호주퇴직연

금투자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주 연금제도 개요 ▲금형 퇴직연금의 한국 도입 등이 다뤄진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금융투자협회 신청 링크(bit.ly/20KIKGI)를 통해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내 주식형 펀드 이틀 연속 자금 순유입

국내 주식형 펀드에 이틀째 자금이 들어왔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14억원이 순유입됐다.

234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220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53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사흘째 순유출세를 이었다.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마니마켓펀드(MMF)에서는 2867억원이 순유출됐다.

MMF 설정액은 122조6120억원, 순자산은 123조742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연합뉴스

10억 투자
2분 모십니다!
(주)오천경매, 010-3605-5000

- ▶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 풀프연습장 공사 중단된 토지
- ▶ 공동소유 개발 및 매매
- ▶ 경기도 연천군 임야 등 45000㎡